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5. 1 | Vol. 246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화엄신중 천일기도 봉행

법원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5일(음력 12월 15일) 입재하여 2016년 10월 10일(음력 9월 10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 천일기도의 발원문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과 더불어 공덕 나누며 지혜와 용기와 원만성취를 함께 하겠습니다. 촛불을 켜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의식적인 행동의 중요함보다는 두 손 합장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신 공덕으로 벗겨지고 씻겨진 참 모습을 원하오니 태우시고 씻기시어 육신이 거하는 또 다른 내가 지워지고 벗겨져 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하사 모래알 같은 중생들이 팔만사천 부처님 법문 속에 몸과 정신을 맡기고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제 마음밭을 고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 of 방을 통해 안정된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돕게 하소서. 자비의 손길과 빛으로 그 마음을 쏘이시고 지극한 법향으로 지난 과오의 업을 지워 주소서. 신심으로 이 기도 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참하신 모든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공이 들게 하시고 윤행하는 행로 행로마다 부처님 함께 하시어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답게 본이 되는 방정한 자세 갖추게 하시고 진정한 빛과 법향을 풍기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여기, 백과좌 법회도량 법원사 불자님들이 천일기도의 범을 세웠습니다. 기도동참 불자님들의 십중 소구 소원이 자비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모력으로 원만성취될 수 있기를 합장발원 올립니다.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음 12월 15일)

■ 회 향 :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음 9월 10일)

천일법회 : 합동재일은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2시 본당 2층에서 약찬게 49독 후 축원

■ 천일염주 : 천일법회시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 도 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초하루 3만원(30개월)

■ 초하루, 보름 특별축원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간 주지스님 집전(대중스님 전체 동참)

■ 10차 기도시 합동천도재 봉행, 영가 1위당 10만원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님께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5
1

Vol. 246호



- 04 깨침의 향기
청정한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 원공당 정무 대중사
- 08 비슬산방
부처님 법의 깨달음은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 실상 주지스님
- 10 불교상징의 세계
시대 상황에 따른 승탑 · 조명래
- 14 법왕사 신도광장
가룻빈가 음식으로 음성공양 올립니다 · 승혜스님
- 18 특집 | 화보
“덩실 덩실~” 흥겨움에 모두가 한 마음
- 20 법왕사소식
- 23 법왕사게시판
- 26 해오름소식
- 27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 불기 2559(서기 2015)년 1월 01일 발행 | 통권 246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유, 승혜, 자행, 강선옥, 강선희 | 기획·제작·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청정한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모든 중생들은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결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누구든지 부처가 되고
성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불도를 닦는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불자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께 복을 빌고 소원성취하기를 바랄 뿐이지 정작 부처가 될 생각도,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불교란 범부의 몸으로 성현이 되는 도리입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생각 돌이켜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부들은 우주에 충만한 부처를 보지 못하고, 중생 구제를 위해 사람의 몸을 빌려 잠시 나투신 눈앞의 부처님만 보고 복과 소원성취만을 빌고 있으니 실로 딱한 노릇입니다.

사람이란 본래 악하고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끌려 다니며 살다보니 때론 악하기도 하고, 때론 선하기도 한 것입니다. ‘일체중생(一切衆生)은 실유불성(實有佛性)’이니 이런 바깥 경계에 휩쓸리지 않고 한결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누구든지 부처가 되고 성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물과 같습니다. 물은 주변 상황에 따라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지만, 물의 본성(本性)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또한 한결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곧 불성입니다. 물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을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을 보기만 하면 복을 빌고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것은 욕심이지 수행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기도를 한들 탐욕만

더할 뿐이지 공덕은 쌓여지지 않고, 업장(業障) 또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수행을 하려면 복도 버리고 소원성취도 버려야 합니다. 금강경(金剛經)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구해 수행하는 자는 청정심을 일으키려고 해서는 안된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들 모두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싫다, 좋다, 내 것이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나쁘다, 착하다 하는 온갖 분별심(分別心)을 버리고 본연의 마음자세 그대로의 마음을 지니고 오직 중생 제도를 위해 살라’는 뜻입니다. 기뻐도 그 기쁨에 사로잡히지 말고, 슬퍼도 그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살아갑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현혹되고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고 속이면서 사는 것이 중생들의 삶입니다. 너와 나라

는 분별을 버리고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찾으려면 인과를 알고 사리를 밝히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잘 되질 않습니다. 모두들 바라는 것이 너무 많고, 원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참된 수행을 하려면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는 내 마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더 크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짓는 죄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 참회(懺悔)할 수 없으니 죄는 눈덩이처럼 굴러갈수록 자꾸 커지기 때문입니다. 도둑놈이 왜 밤중에 몰래 다니고, 죄를 짓고 경찰에 잡힌 사람들이 왜 얼굴을 가립니까? 모두 자기 마



참된 수행은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는 내 마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음에 부끄러운 줄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만년(萬年)의 세월도 부족하지만 인생은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저 잠깐일 뿐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듯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것은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찰나간이요, 그저 숨 한번 내쉬고 들여 쉬는 호흡시간(呼吸之間)에 불과한 것이 인생입니다.

물은 분별하지도 않고 욕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흘러가다가 막히면 돌아갈 뿐이고, 고이면 그저 머무를 뿐이지 이를 가지고 분별하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빨리 가려고 애쓰지도 않고, 늦는다고 조바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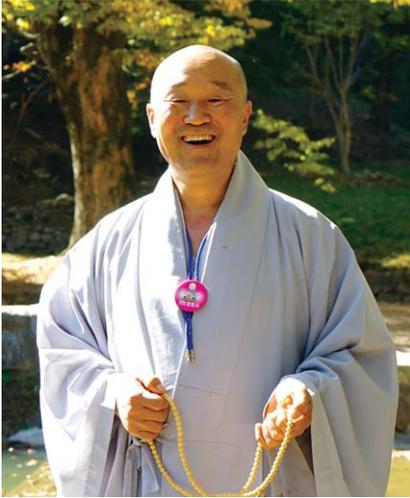
세상의 온갖 더러움이 물에 버려져 악취가 넘쳐나도 깨끗하기 위한 자정(自淨)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은 맑고 깨끗함, 그 원대한 포용력(包容力)을 지니면서도 결코 우쭐대거나 자랑할 줄 모르고 오직 낮은 곳을 찾아다닐 뿐입니다.

손등과 손바닥은 하나입니다. 손등은 손바닥을 보지 못하여 서로가 하나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 범부의 삶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생각을 돌이키면 손등과 손바닥이 서로 하나임을 알듯이 미망(迷妄)에 잠들어 있는 우리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참된 수행에 더욱 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법의 깨달음은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인류가 합리적 이성을 통해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축적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 바깥에 초능력적 존재를 설정하고 그 힘에 의지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홍수나 가뭄, 질병이 발생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초월적 존재가 노해서 그 같은 시련을 준다고 생각하고 희생을 바치는 의식들을 통해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시키고자 했던 것입

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류 지성을 통해서 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무지한 것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현상의 제 원인과 법칙을 알게 되고 나서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신앙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더욱 번창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막연한 종교적 심리상태에 파고들어 인간의 약한 심성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인성을 갖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 타인을 기만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통해 더욱 창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종교라 하면 우리는 언뜻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기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신이란 초월적 존재가 설정되어야만 종교라고 정의하는 선입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교(宗敎)란 한문의 글자 풀이 대로 ‘으뜸되는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가르침이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고, 신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을 종교의 본질로 보는 것은 신에 의한 인간창조를 주장하는 유형의 종교인 기독교 등의 유신적 종교관일 뿐입니다.

또한 종교는 개인의 구원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사회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며, 인격이라는 것이 자기 주변의 환경에 영향받아 이루어지는 것이 라면, 한 개인의 선행과 악행은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그의 구원을 판가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구원에만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이기심을 낳게 하며, 이기심을 갖고 있는 한, 삶의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종교는 사회적 구원을 생각해야 하는 당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출가하여 6년의 고행을 통하

여 얻은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제각기 자기의 위치와 모양을 가지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완전히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관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연기(緣起)). 마치 5개의 손가락이 저마다 위상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손에 연결되어 내 몸의 일부이듯, 이 세상의 모든 존재도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동체(同體)). 그러므로 한 손가락의 아픔이 다른 손가락의 아픔으로 느껴집니다(대비(大悲)). 왼손에 상처가 나면 오른손이 즉시 치료를 하듯, 타인은 곧 나이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즉시 치유해야 합니다(보살행(菩薩行)).

그러므로 깨달음은 곧 치유의 실천적 행위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자즉타 타즉자(自即他 他即自)]을 깨닫는 순간 타인에 대한 경쟁과 증오가 사라지고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치료의 행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즉시 소멸시켜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적 행위가 없는 깨달음은 또 하나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자타가 하나임을 깨달았다면 자타가 함께 이 우주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생명이 기뻐 날뛰는 불국토를 건설해야 합니다.



시대 상황에 따른 승탑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이형양식의 승탑

우리나라 승탑의 이형양식은 신라 하대에 조성된 석종형인 태화사지 승탑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석종형 승탑은 신라시대에 태화사지 승탑 한 기에 불과하지만 고려시

대에 들어 석종형, 원구형, 보궁형, 탑형 등 여러 갈래로 다양화되었다.

이형양식의 승탑은 11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신라의 전통양식에서 벗어나 고려의 독창적인 문화적 기틀



성철스님 부도탑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

이 잡혀지는 시대적 상황과 일치하고 있어 새로운 문화사조의 결과물이라 하겠다.

석종형 승탑은 울산 태화사지 승탑이 원조이며 고려시대 10세기경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북 김제의 금산사 석종을 비롯하여 경기도 여주의 신희사 보제존자 석종, 경기도 장단의 화장사 지공선사정혜 영조탑, 충북 청원의 안심사 석종, 서울 북한산의 태고사 원증국사탑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신희사 보제존자석종은 기단의 폭은 좁아졌지만 석종형 승탑의 기단에서는

처음으로 사면에 소맷돌이 달린 계단을 내고 있고, 2단의 탑신받침 위로는 석종형 탑신을 올리고 탑신의 윗부분은 불꽃모양의 보주로 마감하고 있는데, 계단이나 탑신의 곡면처리가 유연한 가운데 고려 말기 석종형 승탑의 형식을 잘 대변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석종형 승탑의 기본 모델이 되었다.

원구형 승탑은 충북 중원의 정토사터에서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온 정토사지홍법국사실상탑으로 탑신이 원구형으로 이루어진 대리석재의 승탑이다. 기단은 일반형 승탑과 동일한 팔각을 이루고 있으며 중대



지광국사 현모탑

석에는 섬세하고 정교한 무늬의 안상 내부에 운룡무늬를 장식하고 연꽃무늬의 상대석 위에는 공처럼 둥근 탑신이 얹혀 있다.

보궁형 승탑은 강원도 원주 범천사터에서 국립박물관으로 옮겨 온 지광국사현묘탑(국보 제10호)이 유명하다. 평면사각형의 2층 누각형으로 이루어진 이 승탑은 지대석과 하층기단의 네 귀에 용의 발톱과 같은 것이 덮여 있고 기단으로부터 강륜부에 이르기까지 탑 전체에 안상과 신상, 불보살상과 신선상, 그리고 봉황과 구름, 연꽃과 장막 등이 아로새겨져 화려함이 극에

달한 보궁을 연상케 한다. 이 승탑 역시 조각이 용이하고 재질이 호화로운 대리석을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서아시아 건축의 의장도 눈에 띄어 당대 석조미술의 수준은 물론 고려시대의 국제문화 수용에 대한 면모까지도 살필 수 있는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 승탑

2001년 7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 가치가 큰 유산을 지정, 관리하기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불교계에서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부족과 역사적으로 오래된 문화재만이 가치가 있다는 고정관념이 굳게 자리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473호(2011. 8. 24.)로 지정된 예산 수덕사 만공탑(滿空塔)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현존하는 선사들의 승탑과 달리 현대적인 양식의 승탑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경허스님의 법을 계승하고 선지종풍을 진작시켜 한국불교의 중흥조로 추앙받고 있는 만공스님(1871~1946)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자 증은스님이 설계해 1947년 조성한 만공탑은 기존 승탑 양식에서 벗어나 일제 강점기 왜색불교를 타파하고 한국 불교의 자주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만공스님의 사상과 불교 교리를 상징적으로 구현해 내고 있어 근현대사기 사찰 조



수덕사 만공탑

형물로 가치가 있는 점과 각 부재의 구성 요소들이 안정감 있는 비례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 등이 높이 평가돼 지난 2011년 8월 24일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만공탑은 전통적인 승탑 형식을 탈피해 육각의 지대석 위에 원형의 받침돌을 놓고, 그 위에 세 개의 기둥을 평면 'Y'자 형태로 세운 후, 그 위에 구체(球體)를 올려놓았다. 기둥 세면의 빈 공간에 오석(烏石)으로 면석을 조성한 후, 정면에는 '만공탑', 좌우측면에는 '세계일화(世界一花)', '백초시불모(百艸是佛母)'를 비롯한 만공스님의 친필과 행장, 법훈(法訓) 등을 새겼

다. 탑의 상부에 올려놓은 구체는 만공스님을 형상화했다. 세 개의 팔각기둥은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의 삼보(三寶)를, 6각 기단은 6바라밀을 각각 상징하고 있다.

수덕사 만공탑, 해인사 성철탑, 불국사 월산탑을 비롯한 20세기를 이끌었던 선지식들의 사리탑 또한 전통과 어우러진 현대적 승탑은 후손들에게 전하는 전통문화의 메시지가기도 하다.

법왕사 우담바라합창단 일여심 이임숙 고문

가릉빈가 음색으로 음성공양 올립니다

승혜스님 / 법왕사



부처님의 목소리를 사자 울음소리에 비유하여 사자후라고 합니다. 실제 초기경전에는 사자후 경이 나타납니다. 광활한 우주와 오묘한 인생의 생성과 전개와 소멸에 대한 멋진 법문을 펼치시는 부처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① 유창하고(vissattho) ② 명료하고(vinneyyo) ③ 감미롭고(manju) ④ 듣기 좋고(savaniyo) ⑤ 청아하고(bindu) ⑥ 음조가 고르고(avisari) ⑦ 심오하고(gambhiro) ⑧ 낭랑하게 울리는(ninnadi) 것이 바로 부처님 목소리입니다.

〈맛지마 니카야 제2권 제41 브라흐마유 경〉,
〈디가 니카야 제2권 제5 자나바사바 경〉

〈자비도량참회법〉에는 삼보를 존중하고 존경하여 찬탄한다면 목소리가 좋아진다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성자를 공경하는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겠습니다. 사람마다 모습과 성향이 제각각 다르고 목소리 또한 제각각 다릅니다. 행위의 주인, 행위의 상속자인 중생들을 열등하게 혹은 고상하게 만드는 것은 중생의 행위라는 ‘업인과보’의 부처님 가르침을 깊게 새기고 아름다운 마음씨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게끔 훌륭한 원인을 심어야겠습니다.

언젠가 보성 대원사에 기도를 갔습니다. 그 절에는 신도들이 모두 작은 목탁을 치면서 ‘나무아미타불’ 정근을 함께 하더군요. 혼자서 정

근할 때와 색다른 어떤 울림이 법당에 가득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 높고 낮은 소리가 어우러져서 고른 화음을 냅니다. 지난해 원공당 정무 대종사 3주기 추모 음악회 등에서 법왕사 우담바라합창단 단장으로 우리에게 많은 찬불가를 들려 준 이임숙 고문님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찬불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법왕사에서 우담바라합창단 모집을 하더군요. 2006년 2월에 합창단을 발족하여 창단멤버로 등록했고 총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법왕사와 인연을 맺으면서 배우게 많습니다. 다도와 꽃꽂이를 배웠고 좋은 도반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지만 불자의 자세를 잘 갖추지 못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법왕사 백고좌법회에 동참하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다도반에서 육법공양을 올렸고 백고좌법회의 법사스님들을 시봉했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정성껏 법사스님들을 모시면서 불심도 깊어졌습니다. 꽃꽂이반에서는 해인사에 초파일 꽃공양을 올렸고 대구시내 사찰에 꽃공양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도반에서 차공양을 올려놓고 곧장 합창단에 연습을 하러 갔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고비를 맞은 힘든 시기에도 합창단에는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열성적으로 임하면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합창단 연습 후에는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 들 정도였답니다.

합창단이라는 단체에 활동하면서 나를 낮추는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합창단에서 찬불가를 연습하는 자체가 환희롭습니다. 찬불가 가사가 마음에 닿는 날은 따로 적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봅니다. 웃음 짓는 진솔한 마음으로 찬불가 내용을 가사에 실어 노래로 불러 듣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합창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신입회원이 들어오면 찬불가 구절은 모두 정전이라고 알려줍니다. 환희하는 마음 또는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 기도라고 알려줍니다. 초하루 불공의식에 법왕사우담바라합창단이 음성공양을 올리고 난 후에, “고맙다.” “감동의 눈물이 나더라.”는 신도님들의 인사를 듣습니다. 그럴 때 큰 보람을 갖습니다.

합창은 혼자 잘 하는 것보다 전체 화음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매주 연습을 하면서 지휘자 선생님의 지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지휘는 합창단을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무시 선생님께서 수고를 하십

니다. 법왕사합창단이 오래 유지되는 비결은 주지스님과 정무시 선생님,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하는 민지은 선생님과 합창단원들이 모두 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7남매가 모두 불자입니다. 시댁도 불자 집안입니다. 심지어 서울 토박이 올케 형제들은 성당에 나가기도 하던데 올케는 불자입니다. 아버지 49재를 법왕사에서 모셨는데 모두 좋아하고 가족들간에 의견 충돌도 없었습니다. 법왕사가 방송을 많이 타잖아요? 산사음악회에 동참하고 백고좌법회에도 참석을 하는 등 7남매가 골고루 법왕사를 찾아왔었습니다.

우리 집 거사는 마음 편안하게 사찰의 행사에 임하도록 많이 도와줍니다. 처음부터 지켜본 거사니까 믿는 마음이 생겼겠지요. 음력 초하루 불공에는 공양미 한 포를 언제나 우리 집 거사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애들 고3 기도에도 변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올리지 왜 그러냐는 남편의 물음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에 동참하면서 나보다 남을 먼저 보는 눈이 생겼고 당신이 편안하면 우리가 족 전부가 다 편하다”고.

일상의 대소사를 주지스님께 의논드리고 조언을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주지스님



의견에 맞서지 않습니다.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지스님께서 간담판정을 받으셨을 때, 주지스님 안 계시는 법왕사를 위하여 과연 어떻게 할까를 의논하고 음성공양을 한 번 더 하던 우리 신도님들입니다. 거짓이 없어 보이는 주지스님 모습이 좋습니다. 우리들 곁에 계신 것이 든든하잖아요. 권위적이거나 만나 뵈기 어려운 스님이 아니라, 먼저 다가와주는 주지스님이지요. 처음에 저를 “안경보살” 하고 부르며 편안하게 맞아주시던 주지스님의 진심을 우리 신도들은 압니다.

주지스님께서서는 자가용이 없습니다. 우리 스님, 대단하시잖아요? 법왕사 본당은 처음에 비가 오면 지붕이 새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은 전선에 불이

붙기도 했었어요. 법복을 갖춰 입을 여유가 모자라 러닝셔츠에 맨발로. 이렇게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시고 스스로 채찍질하여 정진하시는 분이 바로 주지스님이십니다.

평소에는 천수경의 다라니를 많이 독송합니다. 저는 법왕사와의 인연으로 복 짓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집 거사님은 애들에게 고함 한 번 내지르지 않았을 정도로 착한 사람입니다. 학창시절 친구였는데 부부로 인연을 맺었지요. 대학생 아들 둘이 건강하고 착하게 말썽부리지 않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위에 감사한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알게 된 마음입니다.

“덩실 덩실~” 흥겨움에 모두가 한 마음

법왕사 제44회 1천명 초청 경로잔치가 2014년 10월 11일 법왕사 복지관 지하 1층 공간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광역시회 지원으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오전 11시 경로법회를 시작으로 12시 점심공양, 오후 1시 축하 한마당 순서로 진행된 이번 경로잔치에는 특히 수성구 어르신뿐 아니라 남구 어르신까지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때를 보냈습니다.





03



04



06



05

- 01.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춤과 노래 삼매에 빠진 어르신들과 회원들
- 02. 경로잔치를 주관한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원들
- 03.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분위기를 이끄는 정안식 회장
- 04. 잔치 준비에서 설거지까지 도맡은 협회 회원들
- 05. 시물놀이단의 공연
- 06. 정안식 회장의 축하 열창 모습
- 07. 가수들과 함께 율동을 하는 어르신들
- 08. 색소폰 연주자의 열연



07



08

법왕사 소식

법왕사 7층 석탑불사 봉안



법왕사에서는 지난해 11월 3일 법왕사 광장에 봉안하는 7층석탑 불사를 입재하였습니다. 가람에는 금당과 탑이 갖춰져야 여법한 도량의 면모를 갖게 되는만큼 법왕사에서 5천평 너른 광장에 종합복지관 규모에 걸맞는 7층석탑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이날 법회에는 법왕사 신도 200여 명이 동참하여 불사의 조기 원만회향을 기원하였습니다. 불심 깊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비도량참법 기도법회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해 11월 20일 대법당에서 불자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회향하였습니다. 자비도량참법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의식을 말하는데 이를 수행하면 죄가 없어지고 복이 생겨난다고 하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공덕기원의 뜻을 담고 있습

니다. 무량한 공덕을 지닌 이번 기도법회는 지난해 11월 16일에 입재하였습니다.

갑오년 윤9월 생전예수재 회향

갑오년 윤9월을 맞이하여 지난해 9월 20일 입재한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법회가 11월 17일 회향하였습니다. 이날 회향법회에는 기도에 동참한 200여 불자가 동참하였습니다.

생전예수재란 윤달이 드는 해에 사후에 치를 49재를 살아 생전에 미리 뒤는 법회로 크나큰 공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불교의 고유한 의식으로 생전의 죄업을 참회하고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제28회 백고좌법회 회향, 불명, 보살계수계 법회 불교방송에 방영돼

제28회 백고좌법회 회향법회 상황이 불교방송에 3회에 걸쳐 방영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에서는 지현스님이 집전한 회향법회 전체를 녹화하여 1시간 분량으로 편집하여 방영할 예정입니다.

갑오년 동지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 동지를 앞두고 16일에 입재한 갑오년 동지기도를 회향하였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300여 불자들이 동참하였는데 이번 동지날에도 변함없이 팔죽을 쑤어 먹고 새 달력도 배포하였습니다. 동지는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서 어둠이 극에 달하고 다시 밝음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날이어서 양의 기운이 바야흐로 사생(始生)하는 절기로 예로부터 이 날을 아세(亞歲), 즉 작은 설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절에서는 이날 팔죽을 쑤어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는 풍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법왕사 소식

갑오년 백고좌법회 연 3회 원만 회향

법왕사가 갑오년을 맞이하여 기획한 연속 3회 백고좌법회가 300일간의 대장정을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제26회 백고좌법회가 열렸으며, 5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27회 법회를, 9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28회 법회를 봉행하여 최장 법회 기록을 세웠습니다. 법문을 하신 고승대덕 스님들과 법회에 동참하신 불자 여러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8회 백고좌법회 불명, 보살계수계법회 봉행



제28회 백고좌법회 회향과 불명, 보살계수계법회가 지난해 12월 21일 300여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대적광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순천 송광사 율원장 지현스님께서 범망경 48 보살계를 설법하시고 동참한 불자들에게 불명과 계를 내리며 연비의식도 거행하였습니다.

운불련 정기법회 3일간 봉행

대구 운불련 정기법회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복지관 3층 만불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매년 200여 운전자 불자들이 법회에 동참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법회에서 운불

련 회원들은 해오름요양원 후원금 1백만원을 보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법회는 BBS 불교방송에 뉴스와 법회 상황이 방송되었습니다.

김장 담그기



법왕사는 지난해 12월 9일 좋은 날을 받아서 이번 겨울에 먹을 김장 300포기를 담은 김장 담그기 행사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김장 담그기 행사에는 5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전통 메주 1톤 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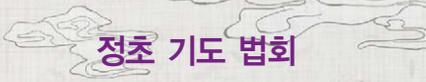
법왕사에서는 청정지역 청송에서 생산된 메주콩 1톤으로 메주를 쑤었습니다. 메주 불사는 1주일 동안 100여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메주가 완성되면 법왕사에서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법왕사 소식

우담바라 합창단 임원진 개선

올미년 새해를 앞두고 법왕사 우담바라 합창단 임원진이 교체되었습니다. 새 회장에는 장영숙 보살님, 부회장에는 노태경, 최창숙 보살님, 총무에는 황미선 보살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전임 임원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1월 19일 저녁 7시에 거사림 창립법회가 열립니다.
- 올미년 일년등 사업등 영가등 기족등 접수시작했습니다.



정초 기도 법회

2015 올미년 한해, 서원을 세우고 조상님의 천도를 기원하며 정초기도를 올립니다.

정초 7일 기도
 입 재 2월 21일(토) 회 향 2월 27일(금)
 동 참 5만원 설 판 20만원



정월 조상천도재
 입 자 2월 27일(금)
 동 참 영가 10위 10만원

독자 원고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와 사보를 읽은 후의 소감이나 각종 제언, 제안 등 후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신행생활의 체험담이나 수필, 기행문, 시 등 문학작품은 물론 사보를 보시고 난 후의 느낌이나 제언 등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사보에 게재하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원고 보내실 곳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 화 | 053-766-3747, 팩스 053-767-6095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편집실



새로 오신 법우님

수성구	권오승	신영달	최종식	박종열
	김항자	김성의	박이자	김은환
	박재우	나기태	배경희	
동 구	김상원	장우진	이상윤	이철우
	정동식			
북 구	배영민	이정호		
서 구	심명보	최미숙		
남 구	김성자	윤 우	이해숙	최승민
	권기태	정영진	최성봉	박성림
달서구	이시종			
경 북	김종순	박병열	김은경	이교금
기 타	김태영	박기윤	권오진	이승환
	김상윤	최현규		

법왕사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덕이 넘치는 신행생활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보도움 주신 분

김임태 200부	전옥남 1,000부
김정숙 200부	김원동
신광옥	박종민
박종철	정민경 1,000부
김춘자 100부	김정곤 1,500부
이재우 100부	권오성(우성주택) 200부
오광진 1,000부	신임선(서각회) 300부
정광춘 300부	박소영 1,000부
덕현스님 300부	전숙환 200부

요양원직원 일동 200부

한국전기공사 대구지회 30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공양 올리신 분

◎ 공양미 올리신 분

이우태	이종강	이정자	이승민	허성빈
정승우	박범수	강정선	백복순	김순자
이준목	김순태	김연수	정근순	서미경

이세정	정춘화	최옥분	박계옥	제갈옥
정 돈	강정선	김만기	홍승규	홍승표
장시덕	강소남	심보현	함지훈	민박유생

◎ 과일공양 올리신 분

이정란	박동근	황해석	최영곤	이정희
윤계한	윤광덕화	류윤만(과일 일체)		
이정상(초하루불공과일 일체)	(동지과일공양 일체)			
세광하이테크(추석합동차례과일 일체)				
우재균(사과 한 박스)				

◎ 떡공양 올리신 분

권영숙	박동근	김기수	조정혜	이정상
최윤재	이세정	정영미	류윤만	오창혁
정연이	심규암	심혜정	박경훈	양영갑
양문갑	전숙환	이임숙	백승렬	오재대
구제철	정국영	윤계한	이영우	하경용
이석진	강지원	이재욱	김상수	이태화
제갈옥	신병기	금태운	황광덕	박이자
강소남	심재용	이정상	김기덕	권도형
박종성	이상호	김주현	강동환	양혜진
정 돈	유영옥	전정진행	윤광덕화	
민황미정	민김서준	김주택(12/24 생일 떡공양)		
이영석(동지방생 떡공양)				

◎ 꽃공양 올리신 분

서치경

◎ 대중공양 올리신 분(고춧가루공양)

김기수	김상희	이두이	강정민	신명균
신승훈	문화정	신민경	신유림	최태희
류윤만	이정상	김근태	박정훈	제갈옥
오순희	이희동	이세정	정춘화	김영홍
사공순옥	구실상화	사공관	5만원	

◎ 승복공양 올리신 분

이승민 25만원

◎ 동지방생공양 올리신 분

정영미 홍유식 김옥희 정난희 제갈욱
권정화 이영석 구실상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불사 올리신 분

◎ 천일기도 접수하신 분

이승환 박이자

◎ 법당 인등 접수하신 분

이승언 임준우 조현호 이월래 이재욱
최라임 이승호 이현아 정영웅 이원숙
정민수

◎ 올미년 1년(가족등) 올리신 분

- | | | | |
|--------|--------|--------|--------|
| 1 박해진 | 2 박경훈 | 3 이재학 | 4 김상수 |
| 5 문수명 | 6 함지훈 | 7 이종량 | 8 제갈욱 |
| 9 신영일 | 10 권기욱 | 11 전태일 | 12 이금교 |
| 13 김대곤 | 14 유시환 | 15 심동섭 | 16 김종태 |
| 17 이성락 | 18 박명근 | 19 장기관 | 20 이구방 |
| 21 장원석 | 22 강윤석 | 23 강기화 | 24 강윤희 |
| 25 최임한 | 26 김성목 | 27 문용욱 | 28 김경미 |
| 29 조봉기 | 30 신구자 | 31 이우영 | 32 진영덕 |
| 33 전병혁 | 34 이순남 | 35 심규암 | 36 김순조 |
| 37 김일곤 | 38 홍진호 | 39 박우홍 | |

◎ 3층 만불전 원불 봉안

3399 박종민 3400 정혜은 3401 박종철
3402 김주양 3403 이경심 3404 이승민

◎ 4층 대적광전 삼신불 불사 올리신 분

구연근 한순복 박병윤 김옥성 배영민
남학형

◎ 한평 불사 올리신 분(가창 해오름요양원 건립 불사)

이철우 이상윤 전태일 권혜정 유복진
해조법사스님

결혼을 축하합니다

- ♡ 오규동 김성의 신도님의 장녀 오정현 양의 결혼식이 10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 권오승 안현순 신도님의 차녀 권다원 양의 결혼식이 11월 22일에 있었습니다.
- ♡ 이윤석 김춘자 신도님의 차남 이재천 군의 결혼식이 11월 23일에 있었습니다.
- ♡ 임인규 최영희 신도님의 차남 임종빈 군의 결혼식이 11월 29일에 있었습니다.
- ♡ 오창혁 신정순 신도님의 장녀 오지현 양의 결혼식이 12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박병기 주복귀 신도님의 차남 박 훈 군의 결혼식이 12월 21일에 있었습니다.
- ♡ 권오경 조호선 신도님의 장녀 권나현 양의 결혼식이 12월 27일에 있었습니다.
- ♡ 서영희 정애숙 신도님의 차녀 서명진 양의 결혼식이 12월 28일에 있었습니다.
- ♡ 신랑 김상수 군과 신부 최지민 양의 결혼식이 2015년 2월 1일에 열립니다.

불자 탄생을 축하합니다

- ☆ 김대영 박효선 부부의 장녀 김세은 양이 11월 20일(음 윤9월 28일)에 탄생했습니다.
‘世銀’은 세상에 빛이 되라는 뜻입니다.
- ☆ 임태혁 소혜희 부부의 장남 임만재 군이 12월 10일(음 12월 10일)에 탄생했습니다.
‘萬在’은 높고 깊게 되라는 이름입니다.

요양원에 후원해 주신 분

박경훈 박종성 최성봉 활안스님
김영자 (비단이불 2채, 독일제진공청소기 1대,
러닝머신 1대, 벽시계 큰 것 1개, 김치냉장고 1대)

후원품 보내주신 분

이영석 전금수 이현자 이유태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오창혁 오재대 남세은 흥분희 정애숙
김해수(운불련)

왕생극락하옵소서

- ◆ 亡성석금 영가님의 기제사가 12월 11일에 있었 습니다.
 - ◆ 亡김순홍 영가님의 기제사가 12월 11일에 있었 습니다.
 - ◆ 亡김삼근 영가님의 49재 막제가 2015년 1월 2 일에 있습니다.
 - ◆ 亡오한년 영가님의 기제사가 2015년 1월 1일에 있습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제44회 경로잔치에 도움 주신 분

- 지장회 : 10만원 • 박성권 : 행사 팸플렛
- 흥유식 : 굴 2박스 • 합창단 : 10만원
- 합창단장 : 5만원 • 산신회 : 5만원
- 신장회 : 10만원 • 관음회 : 10만원
- 다산미디어(사보제작업체) : 경품티켓(선물)
-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지회 : 선물용 김 25박스
- 참사랑 봉사단 : 경로잔치 공연

본원스님 인문학 강좌 개설

법왕사에서는 오는 1월 3일부터 90일 동안 본원스님을 모시고 다양한 고전을 통해 인문학 정신을 배우는 인문학 강의를 개설합니다.

- 개강: 2015년 1월 3일
- 시간: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시
- 강사: 본원스님
(지리산 토굴 6년 정진)

- 1강 발심장
- 2강 택리지
- 3강 수심결
- 4강 코란
- 5강 채근담
- 6강 육조단경
- 7강 노자 및 장자
- 8강 법구경

해오름 요양원 소식



놀이치료 프로그램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침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신체적, 인지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서적인 활동으로 좀 더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요양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예치료 프로그램

원예치료 시간입니다. 국화 꽃향기를 직접 맡으면서 가위로 생화를 자르고 오아시스 위에 꽃꽂이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화를 기대해 봅니다.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 시간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그려봅니다. 그려진 과일들을 보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과일을 누구와 나누어 먹고 싶은지 사랑하는 가족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짝 합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김명희(놀이치료), 김명희(미술심리치료)
박희조, 조경미(기타 봉사)

| 단체 정기봉사자 |

참사랑문화봉사단, 써포터즈봉사단
수성시니어클럽봉사단, 시지고 여우별
이·미용봉사단(무궁화 미용학원)

| 학생 정기봉사자 |

장임영, 김지현, 유혜영, 신지원, 신지현, 박성민

제2해오름요양원·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 44분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분들은 많은데 복지관 내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차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법왕사는 제2해오름요양원과 병원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립니다)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9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송정숙 5천원	이재봉 5천원	김순연 5천원
김정규 5천원	김성의 1만원	장승대 1만원
장진근 1만원	엄세비 1만원	정민주 5천원
김금희 5천원	송지은 5천원	한유자 5천원
김대현 5천원	전영희 5천원	권오국 1만원
박남희 1만원	한희록 1만원	전숙희 1만원
윤정언 1만원	권순영 1만원	권영희 1만원
김용태 1만원	금강사 2만원	권순철 1만원
박병준 1만원	이명희 1만원	서규하 2만원
황상욱 2만원	서치경 1만원	최은순 1만원
이채원 1만원	권영진 1만원	박종규 1만원
김경호 1만원	김명옥 1만원	정명선 2만원
박성림 1만원	김은주 1만원	최영희 1만원
진봉희 1만원	박재후 1만원	신진무 1만원
정운현 5천원	백옥수 5천원	이정순 5천원
채수인 5천원	신임선 5천원	허유미 5천원
신충호 5천원	황지영 5천원	이호동 5천원
장효주 5천원	최은희 5천원	박정목 1만원
권기철 1만원	석중순 1만원	장성용 1만원
우포정사 1만원	정대영 1만원	남기웅 1만원
이정화 1만원	최경순 1만원	강유미 1만원
이현기 1만원	성유련 2만원	손말두 5천원
정선옥 5천원	이정희 5천원	김상철 5천원
박치민 5천원	이전희 5천원	김순연 5천원
시명스님 5천원	김임태 5천원	박성숙 5천원
고연숙 1만원	정할수 3만원	김우영 1만원
황학영 1만원	임상덕 1만원	상승길 1만원
김경환 1만원	신수희 1만원	김형택 2만원
권영희 1만원	김미정 1만원	정시영 1만원
정경석 2만원	박귀분 1만원	권보형 2만원
김영일 1만원	김원형 3만원	홍새미 1만원
정옥선 1만원	용마관음사 3만원	조규인 1만원
임익균 1만원	정옥수 5천원	박순영 5천원
홍유식 5천원	김진현 5천원	박동규 5천원
채옥연 5천원	사공관 2만원	김예분 1만원
강선옥 1만원	권봉자 3만원	김진성 1만원
신진숙 1만원	배수현 2만원	오금옥 1만원
이은경 1만원	신돈식 1만원	이남희 1만원

반룡사 1만원	안상준 2만원	심종순 5천원
박대희 5천원	한규매 5천원	이성환 5천원
여택동 5천원	정연이 5천원	이종희 5천원
이인순 5천원	정경숙 1만원	안경순 1만원
전행연 1만원	박원태 1만5천원	신세호 1만원
강소남 5천원	김봉숙 5천원	강심규 5천원
오난옥 5천원	박태숙 5천원	김유진 1만원
이병희 1만원	이승미 1만원	문정애 2만원
유명옥 1만원	김순란 3만원	이용옥 1만원
류운만 1만원	김기덕 2만원	김외환 1만원
이임숙 2만원	조영석 1만원	신구자 5천원
노귀자 5천원	박순남 5천원	김무용 5천원
김영호 5천원	양나영 5천원	이정옥 1만원
김희창 1만원	박학순 1만원	정무시 1만원
여형교 1만원	김수라 1만원	신희사 1만원
김정임 1만원	박남희 1만원	최분규 1만원
민주현 1만원	권숙자 1만원	조창신 1만원
현영희 1만원	안명희 1만원	황준원 1만원
강영도 2만원	황미선 2만원	조성자 5천원
이혜진 5천원	최창숙 5천원	심규암 5천원
조정자 5천원	김정자 5천원	권순미 1만원
현인숙 1만원	함민주 1만원	노수정 1만원
권계화 1만원	김미자 1만원	구정대 2만원
김기수 2만원	장성규 5천원	박경자 5천원
박희조 5천원	도화순 5천원	박재기 5천원
장재혁 5천원	장우성 1만원	김순태 1만원
김정순 3만원	김민주 1만원	김유리 1만원
양봉훈 1만원	이현옥 1만원	최경미 1만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강미경 5천원	이은희 5천원	이강복 1만원
---------	---------	---------

합계 1,965,00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88,000원
- 문자통지 수수료	2,000원
- 기저귀구입	1,991,000원
- 폐기물처리비	540,000원
- 의료비	8,000원

9월 총 사용내역 2,621,000원

후원물품 보내신 분

진병호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box, 순대 2판
이해남 **어르신 보호자** :
 요구르트 60개, 바나나 1box, 과일음료 1box
김용회 **어르신 보호자** : 포도 3송이
박말분 **어르신 보호자** : 커피믹스 1box
유세모 **어르신 보호자** : 바나나 1box
노진덕 **어르신 보호자** : 커피믹스 1box, 포도 1box
이선희 **어르신 보호자** : 홍시 1box
채분이 **어르신 보호자** : 현금 1만원
김일순 **어르신 보호자** : 요구르트 45개
차수학 **어르신 보호자** : 현금 3만원
이수남 **어르신 보호자** : 현금 5만원
김명희 **자원봉사자** : 롤케이크 3개
신장희 : 참기름 3만원 상당
김순란 **보살** : 과일 3만원 상당
장어와미꾸라지 : 추어탕 50인분
김민지 **보살** : 고기 5만원 상당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 이수남 어르신 김일순 어르신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0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이정연 5천원	장성규 5천원	심규암 5천원
김희창 1만원	양나영 5천원	정태교 5천원
김미자 1만원	김정자 5천원	여형교 1만원
신혜경 1만원	이복희 1만원	도화순 5천원
김기수 2만원	김영호 5천원	인명희 1만원
김정희 5천원	장재혁 5천원	구정대 2만원
조성자 5천원	황미선 2만원	송정숙 5천원
양봉훈 1만원	김순태 1만원	이혜예진 5천원
현인숙 1만원	송민경 1만원	이재봉 5천원
김민주 1만원	권순미 1만원	노수정 1만원
김금희 5천원	권영철 6만원	장승대 1만원
박경자 5천원	권계화 1만원	박남희 1만원
김정규 5천원	이현옥 1만원	박희조 5천원
장우성 1만원	권순영 1만원	김경환 1만원
김성의 1만원	박재기 5천원	김정순 3만원

권순철 1만원	엄세비 1만원	장진근 1만원
김유리 1만원	신화식 1만원	한유자 5천원
한희록 1만원	송지은 5천원	최경미 1만원
민주현 1만원	이정순 5천원	박병준 1만원
전숙희 1만원	정민주 5천원	조창신 1만원
전영희 5천원	황상욱 2만원	김용태 1만원
권오국 1만원	황준원 1만원	박종규 1만원
최은순 1만원	이명희 1만원	윤정연 1만원
최창숙 5천원	정명선 2만원	김경호 1만원
서치경 1만원	금강사 2만원	조정자 5천원
최영희 1만원	백옥수 5천원	이채원 1만원
서규하 2만원	이정옥 1만원	채수인 5천원
진봉희 1만원	김명옥 1만원	김대현 5천원
정무시 1만원	신충호 5천원	신임선 5천원
박성림 1만원	권명진 1만원	김정임 1만원
석종순 1만원	김승환 5천원	신진무 1만원
정운현 5천원	권숙자 1만원	최윤희 5천원
박정숙 1만원	권기철 1만원	김은주 1만원
현영희 1만원	이정화 1만원	이호동 5천원
이은경 1만원	정순옥 5천원	강영도 1만원
이현기 1만원	우포정사 1만원	김영희 5천원
박재후 1만원	김유진 1만원	김상철 5천원
최경순 1만원	장성용 1만원	허유미 5천원
유명옥 1만원	김순연 5천원	성외련 2만원
정대영 1만원	황지영 5천원	김기덕 2만원
황학영 1만원	고연숙 1만원	손말두 5천원
장효주 5천원	이임숙 2만원	신수희 1만원
정철수 3만원	정선옥 5천원	남기웅 1만원
김태윤 1만원	김미정 1만원	임상덕 1만원
박치민 5천원	강유미 1만원	정병태 1만원
박성숙 5천원	김임태 5천원	시명스님 5천원
이정희 5천원	김순란 3만원	정옥수 5천원
정시영 1만원	성승길 1만원	이전희 5천원
신구자 5천원	용마관음사 3만원	권보형 2만원
김형택 2만원	김우영 1만원	조영석 1만원
김진현 5천원	조규인 1만원	정경석 2만원
권영희 1만원	박학순 1만원	박동규 5천원
시공관 2만원	김영일 1만원	박구분 1만원
김수라 1만원	신진숙 1만원	채옥연 5천원
정옥선 1만원	김원형 3만원	최분규 1만원
이상환 5천원	배수현 2만원	홍유식 5천원

박순영 5천원	김영희 5천원	반룡사 1만원
신돈식 1만원	김승환 3만원	임익균 1만원
김무용 5천원	정경숙 1만원	여택동 5천원
김예분 1만원	강선욱 1만원	류윤만 1만원
전행연 1만원	이종희 5천원	권봉자 3만원
김진성 1만원	노귀자 5천원	신세호 1만원
안경순 1만원	오금옥 1만원	심종순 5천원
강소남 5천원	이승미 1만원	강심규 5천원
이점례 2만원	한규매 5천원	박원태 1만5천원
이용욱 1만원	박태숙 5천원	박대희 5천원
정연이 5천원	오난옥 5천원	김외환 1만원
이은주 2만원	이남희 1만원	이인순 5천원
이병희 1만원	박순남 5천원	문정애 2만원
안상준 2만원	김봉숙 5천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강미경 5천원 이은희 5천원 이강복 1만원

합계 2,135,00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88,000원
- 문자통지 수수료	2,000원
- 식재료비	1,054,000원
- 필요물품 구입비	37,400원
- 업무용차량 주유비	100,000원
- LPG가스대금	1,000,000원

10월 총 사용내역 2,282,190원

후원물품 보내신 분

이수남 어른신 보호자

: 음료수 1box, 굴 1box, 바나나 1손, 야쿠르트 30개

김일순 어른신 보호자: 박카스 1box, 야쿠르트 45개

유세모 어른신 보호자: 바나나 10손, 굴 1box

남분한 어른신 보호자: 오렌지쥬스 2병

한을식 어른신 보호자: 야쿠르트 45개

강봉자 어른신 보호자: 감홍시 1box, 사과 1box

마기렛트 2통, 빵 8개, 주스 12병, 야쿠르트 45개

차수학 어른신 보호자: 굴 1box

이선희 어른신 보호자: 찐빵 20개, 밀감 1box

서윤수 어른신 보호자

: 야쿠르트 40개, 요플레 24개, 우유200ml 20개

박수연 어른신 보호자: 베지밀 1box

김명희 봉사자: 호박죽 31인분

NH농협생명: 수건 50장

신장희: 참기름 3만원 상당

장어와미꾸라지: 추어탕 50인분

김민지 보살: 고기 5만원 상당

김순란 보살: 과일 3만원 상당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른신: 권영를 어른신 강봉자 어른신
 최숙자 어른신

신규 입사 종사자: 강선희 사회복지사, 류금자 요양
 보호사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1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배수현 2만원	김정순 3만원	최영희 1만원
이정훈 1만원	김경호 1만원	김외환 1만원
정명선 2만원	백옥수 5천원	박순남 5천원
채옥연 5천원	박대희 5천원	김대현 5천원
오난옥 5천원	노수정 1만원	권영희 1만원
이채원 1만원	이점례 1만원	강영도 2만원
김형택 2만원	신세호 1만원	서치경 1만원
권계화 1만원	황상옥 2만원	박미경 2만원
권순복 1만원	사공관 2만원	박병준 1만원
이용욱 1만원	권순영 1만원	장우성 1만원
권영희 1만원	이승미 1만원	권순미 1만원
류금자 1만원	심규암 5천원	이인순 5천원
김정자 5천원	김봉숙 5천원	이하예진 5천원
한희록 1만원	장호식 2만원	권순철 1만원
김기수 2만원	성승길 1만원	정경숙 1만원
오금옥 1만원	구정대 2만원	엄세비 1만원
서규하 2만원	조규인 1만원	김순태 1만원
반룡사 1만원	이명희 1만원	김민주 1만원
김우영 1만원	김용태 1만원	조성자 5천원
시명스님 5천원	정연이 5천원	이성환 5천원
한규매 5천원	강희정 5천원	현인숙 1만원

김경환 1만원	우지선 1만원	박남희 1만원
홍새미 1만원	현영희 1만원	이은경 1만원
장진근 1만원	홍세림 1만원	정무시 1만원
신진숙 1만원	권보형 2만원	황미선 2만원
금강사 2만원	조일훈 1만원	강선옥 1만원
김정임 1만원	이전희 5천원	송지은 5천원
권영철 5천원	이재봉 5천원	김진현 5천원
김영호 5천원	심종순 5천원	권숙자 1만원
용마관음사 3만원	전숙희 1만원	정활수 3만원
이임숙 2만원	임상덕 1만원	문정애 2만원
이정희 5천원	박동규 5천원	김정규 5천원
이옥자 5천원	장재혁 5천원	정옥수 5천원
김금희 5천원	신혜경 5천원	박성숙 5천원
도화순 5천원	김임태 5천원	노귀자 5천원
장성규 5천원	김진성 1만원	양봉훈 1만원
이현옥 1만원	정시영 1만원	류윤만 1만원
김미정 1만원	김태규 1만원	강유미 1만원
황학영 1만원	김희창 1만원	고연숙 1만원
김기덕 2만원	김미자 1만원	신수희 1만원
여형교 1만원	성외련 2만원	안명희 1만원
배윤주 1만원	김성의 1만원	이정옥 1만원
윤정연 1만원	정병태 1만원	곽순복 2만원
황준원 1만원	임예숙 1만원	유희연 1만원
권봉자 3만원	유명옥 1만원	박재후 1만원
권기철 1만원	송민경 1만원	최경순 1만원
이은주 1만원	권오국 1만원	장승대 1만원
우표정사 1만원	김수라 1만원	박치민 5천원
양나영 5천원	허유미 5천원	황지영 5천원
송정숙 5천원	최창숙 5천원	신진무 1만원
임익균 1만원	김유진 1만원	최경미 1만원
최분규 1만원	김태운 1만원	이현우 1만원
권기정 5천원	박순영 5천원	정선옥 5천원
김상철 5천원	이호동 5천원	조정자 5천원
김순연 5천원	황병숙 5천원	박태숙 5천원
박정목 1만원	남기웅 1만원	이현기 1만원
김예분 1만원	박원태 1만5천원	장효주 5천원
최윤희 5천원	강심규 5천원	손말두 5천원
홍유식 5천원	박명숙 1만원	이정화 1만원
김정희 1만원	민주현 1만원	신화식 1만원
석종순 1만원	안경순 1만원	정대영 1만원
박희조 5천원	신임선 5천원	강소남 5천원

윤광숙 5천원	신총호 5천원	이종희 5천원
정순옥 5천원	박경자 5천원	김원형 3만원
김진현 1만원	박학순 1만원	김은주 1만원
고선영 1만원	채수인 5천원	신구자 5천원
정운현 5천원	조인성 5천원	김승환 5천원
김영희 5천원	박종규 1만원	조영석 1만원
현종열 1만원	이유태 1만원	권명진 1만원
김명옥 1만원	박귀분 1만원	안상준 2만원
강선희 1만원	박성림 1만원	진봉희 1만원
김수란 3만원	이정연 5천원	한유자 5천원
이정순 5천원	여택동 5천원	정태교 5천원
전영희 5천원	이길영 1만원	이남희 1만원
박계옥 1만원	정옥선 1만원	김영일 1만원
신돈식 1만원	이복희 1만원	함민주 1만원
정경석 2만원	이병희 1만원	강동규 1만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강미경 5천원	이은희 5천원	이강복 1만원
---------	---------	---------

합계 2,295,00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44,000원
- 문자통지 수수료	2,000원

11월 총 사용내역 46,000원

후원물품 보내신 분

강봉자 어른신 보호자 : 바나나 2송, 밀감 1box

박말분 어른신 보호자 : 요구르트 30개

김용희 어른신 보호자 : 토마토주스 1병

박수연 어른신 보호자 : 밀감 1box

유세모 어른신 보호자 : 바나나 8송, 밀감 1box

이해남 어른신 보호자

: 야쿠르트 45개, 고구마 5개, 홍시 30개

백복순 어른신 보호자 : 한과 2box

진병호 어른신 보호자 : 박카스 1box, 순대 2관

권혁만 기사 : 비스킷 세트

김명희 자원봉사자 : 호박죽 31인분

신장희 : 참기름 3만원 상당

장어와 미꾸라지 : 추어탕 50인분

김수란 보살 : 과일 3만원 상당

김민지 보살 : 고기 5만원 상당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 이귀남 어르신 오외덕 어르신

신규 입사 종사자 : 장지연 작업치료사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강선희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좌 5,000원부터)

을미년 입춘·삼재 풀이 대법회

〈토끼, 양, 돼지〉〈날삼재〉

법왕사에서는 을미년 입춘을 맞이하여 입춘삼재 풀이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올해 삼재에 드는 띠는 토끼, 양, 돼지띠로 기도를 통해 삼재를 풀어 걸림 없는 한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월 4일(입춘) ~ 3월 5일

🌸 준비물 쌀 3되 3홀, 나이수만큼 동전, 묵은 내의 한벌



부처님 성도재일 철야정진

법왕사에서는 오는 1월 27일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이하여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합니다.

성도재일은 석가모니께서 정각에 이르러 비로소 부처님이 되신 날입니다.

🌸 일 시 1월 27일(화, 음 12. 8)

저녁 7시 ~ 새벽 4시 예불시(자유정진)

🌸 등 참 1인 1등 달기(5천원)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다도

- 강사 : 김정규 선생님
- 약력 : 청화다례원 원장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꽃꽂이

- 강사 : 송혜스님(비구니)
- 시간 : 매주 월요일



합창단

- 강사 : 정무시 선생님
- 약력 : 영남대학 음악대학 동대학원 졸업
대구시립합창단원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회비 : 없음



서각

- 강사 : 신임선 선생님
- 약력 :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
죽농서단 이사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 시간 : 매주 목요일
- 회비 : 3개월 20만원(재료비 별도)



사물놀이

- 강사 : 이정화 선생님
- 시간 : 매주 목요일



청정 지역 청송에서 100% 순 우리 콩으로 빚은 간장·된장 재래식 전통 비법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청정지역 청송에서 재배한 순 우리 콩으로 빚은 메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왕사 메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지역인 청송에서 재배하고 가공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발효한 최고의 친환경 식품입니다.



간장 2만원
된장 3만원



구입문의 053-766-3747, 9088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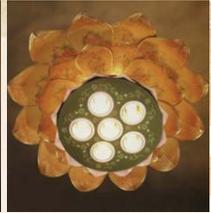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상들리에 · 불구 보시 모연문

법왕사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조성 불사회향을 앞두고 삼존불을 장엄할 천장의 상들리에와 촛대, 향로 등 불구를 보시받고 있습니다. 법왕사 대적광전은 천정 높이 9m에 이르는 장대한 법당으로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등 삼존불을 봉안합니다. 도량과 법당, 불상의 위엄에 걸맞는 장엄물을 보시받고 있사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법당용 6봉 연등, 법당 연반등, 향로 촛대 세트

불사하신 분

구연근 한순복 박병윤 김옥성 배영민 남학형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위한
웨딩의 모든 것



LASTELLA
WEDDING

토탈웨딩 라스텔라
수성점 / 동성로점

토탈웨딩
공연&파티드레스
메이크업&헤어
네일&속눈썹
다이어트&스킨케어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28길 7-4 lastella
대구시 중구 공평동 82-2 3층 lastella
T 053) 431-0000 F 053) 256-0000
blog.naver.com/lastella777

법왕사 1인 1원불을 모십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성지인 비슬산 줄기에 자리잡은 법왕사는 비록 창건 역사는 짧지만 삼한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그 정통을 이어온 신라 불교의 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의 성지인 영남, 그 가운데서도 팔공산과 쌍벽을 이루는 비슬산의 정기는 영남 불교의 거대한 연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역사성에 걸맞게 법왕사는 1백분의 스님을 모시고 1백일 동안 끊임없이 법문을 듣는 백고좌법회를 28회나 봉행하여 법문과 기도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세계최대 불교복지도량 건립의 서원을 세우고 불사를 진행하여 현재 5천평 대지 위에 연건평 1천평, 4층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4층에는 대적광전을, 3층에는 만불전을 조성하였습니다.

《보적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을 조성하여 모시는 공덕은 수미산과 같다’ 고 하였습니다. 그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만불전에는 법왕사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일인 일원불을 모실 수 있도록 원불을 모시고 있으니 불차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 달의 원불 모신 분

이계철 영가(지장보살)	권을필 영가(지장보살)
유청일 영가(지장보살)	권재우(관세음보살)
수공 영가(지장보살)	일경 영가(지장보살)
이광선 영가(지장보살)	전명오 영가(아미타불)
고태선(아미타불)	김순분(아미타불)
전순환(지장보살)	장삼술(관세음보살)
엔디장(관세음보살)	연지 영가(석가모니불)
연성 영가(아미타불)	연화 영가(지장보살)
법륜 영가(대일여래불)	모길 영가(관세음보살)
이상호(관세음보살)	이현(지장보살)



대한불교 법왕사
조계종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할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 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신행단체 모임안내

- | | | | |
|-------|--------------------------|-------|------------------|
| 신 장 회 |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 인 등 회 |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
| 산신기도회 | 매월(음) 16일 오후 4시 | 지 장 회 |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
| 관 음 회 |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 합 창 단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 천일기도회 |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후 2시~4시까지 | 주지스님 | 집전 |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올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에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중급반은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귀국한 영일스님께서 근본불교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개강은 2015년 3월 중에 하며 불교에 관심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초급, 중급, 야간반은 현재 개설 중입니다.
- 아함반은 새해 3월 신학기에 개강합니다.
-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중급반	영일스님	근본불교(남방불교, 소승불교)	매주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 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등)	추후 공고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